

동해 계절수온약층의 분포특성

정희등 · 정규귀 · 황재등 · 이삼근

국립수산진흥원 해양연구과

서론

동해는 대마난류의 이동경로(Stommel *et al.*, 1972)에 따라 계절수온약층의 공간적 분포가 달라진다.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의 해양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동해에 존재하는 계절수온약층의 분포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.

재료 및 방법

자료는 일본해양자료센터(JODC)가 발행한 전세계 해양의 수층별 수온자료(1943-1993년)(JODC, 1996)와 국립수산진흥원의 정선해양관측에 의한 수층별 수온자료(1960-1998년)를 이용하였다. 계절수온약층의 공간적 분포를 보기 위해 수온자료를 누년 평균하여 격월별로 생성된 평균수온을 수층별로 분석하였다.

결과 및 요약

정선해양관측자료를 이용하여 8월의 15℃ 등온선 수심을 살펴보았다. 대한해협에서 등온선은 수심 약 100m 정도에서 나타났다. 본 등온선의 수심분포는 일본연안을 따라서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, 한국연안을 따라서는 고위도로 갈수록 급격히 얕아진다. 동해 북서부 해역에서 15℃ 이상의 수온이 나타나는 수심은 약 10m 이내이다. 계절수온약층 역시 동해 수온 극전선이 나타나는 위도를 경계로 그 분포수심이 상당히 변화한다.

참고문헌

Japan Oceanographic Data Center, 1996. Temperature Profile Data Set, CD-ROM JODC-Stommel, H. and K. Yoshida, 1972. Kuroshio; Its physical aspects, Univ. of Tokyo Press 353-369.